

최근 유가 급등 요인과 향후 전망

작 성

선임연구원 성동원 (3779-668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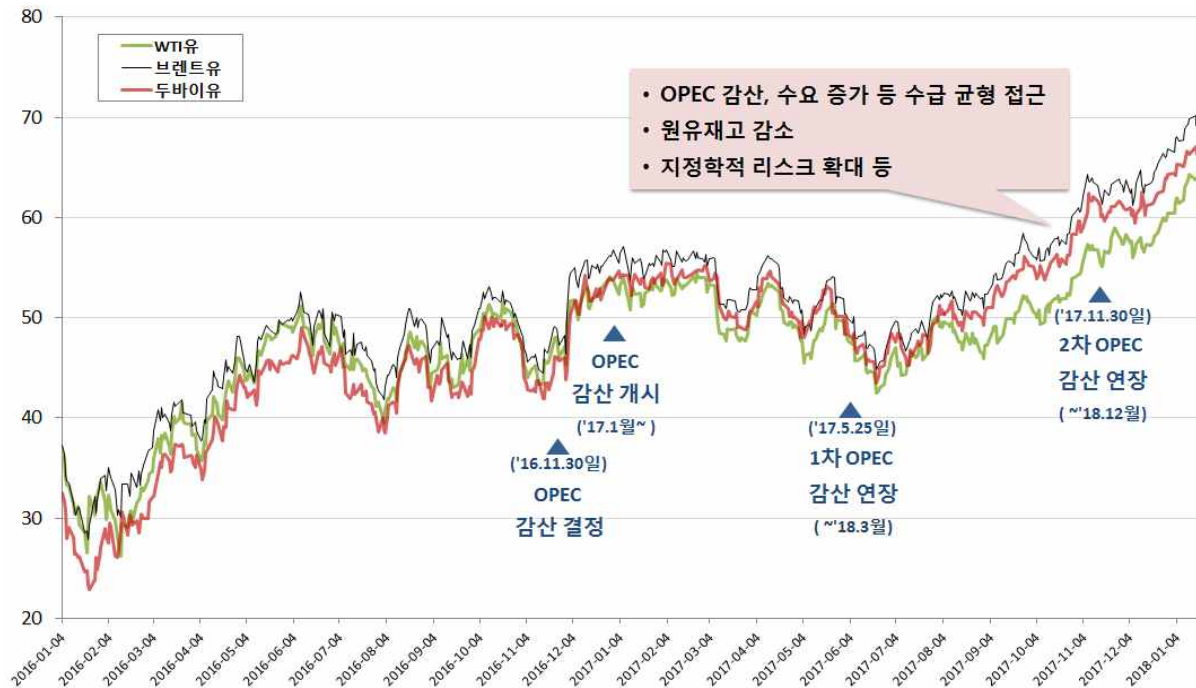
dwsung@koreaexim.go.kr

□ [국제유가 추이] 유가 상승세 지속, 1월 중순 배럴당 70달러에 육박

- 두바이 유가가 2017년 6월 말 배럴당 40달러 초반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여, 2018년 1월 60달러 후반대까지 상승, 3년래 최고치 기록

< 최근 2년간 국제유가 추이 >

(단위: \$/bbl)



자료: Koreapds

□ [유가 급등요인] OPEC 감산연장 등 공급과잉 우려 완화, 견조한 수요 증가,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유가상승 견인

① 공급과잉 우려 완화

- (OPEC 감산) 2017년 11월 30일, OPEC은 감산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
 - OPEC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만인 2016년 11월, 180만 b/d 감산에 합의하여 2017년 1월부터 감산에 돌입한 이후, 2017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감산연장으로 2018년 말까지 감산 시행 예정
- (미국 시추리그 수 감소세) 2017년 하반기, 원유 시추리그 수 감소세 전환도 공급과잉 우려 완화에 기여

- 2016년 5월 이후 유가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미국 원유 시추리그 수가 지난 해 8월 이후 소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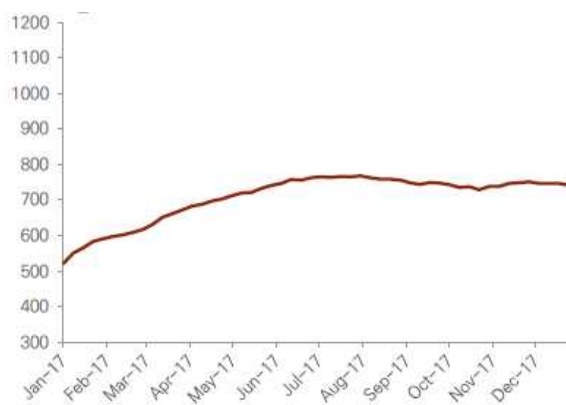
* 미국 원유 시추 리그 수: ('16.5.27일) 316개 → ('17.8.11일) 768개 → ('18.1.12일) 752개

- 다만 시추리그 수 증가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 원유 생산량은 시추효율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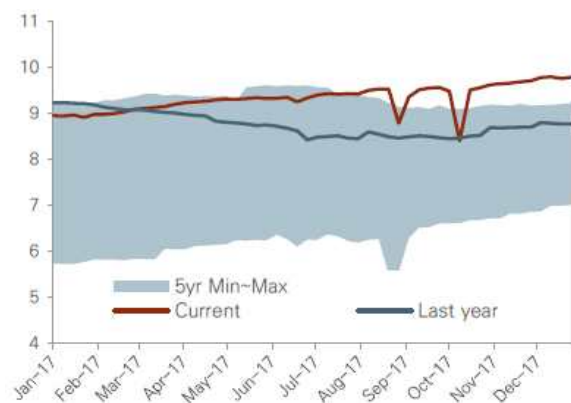
* 1/12일 주 기준 미국 원유 생산량은 전주 대비 25.8만 b/d 증가한 975만 b/d

< 미국 원유시추리그 수와 원유생산량 추이 >

(단위: 건수)



(단위: \$/bbl)



자료: Baker Hughes, EIA 등, Koreapds 재인용

② 수요 증가

- 세계 경제성장률 회복과 북반구 한파 등으로 견조한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

- 신흥국 경제성장세 확대와 함께 2016년부터 완만한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3% 후반대를 기록하고, 이에 따라 2017년 석유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3만 b/d 증가한 9,839만 b/d 기록(EIA)

* IMF 경제성장률(%) 전망 : ('17) 3.6% → ('18) 3.9%

- 한편 미국*, 일본 등은 겨울철 이상 한파로 난방용 석유수요 확대

* 미국은 2017년 12월 24일~2018년 1월 3일까지 평균기온이 과거 30년 평균치 대비 13도가 낮은 영하 2도를 기록하며 난방유 수요가 전년동월 대비 22만 b/d 증가

③ 원유재고 감소

- OPEC 감산이행과 견조한 수요증가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OECD 원유재고 감소세 지속
 - 미 원유재고량은 2017년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올해 1월 12일 기준 전년동기 대비 15% 감소한 4억1,265만 배럴 기록
 - 다만 원유재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동기 평균치인 4억385만 배럴보다 여전히 2.2%(881만 배럴) 높은 수준

< 미국 원유재고추이 >



자료: EIA, Koreapds 재인용

④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

- 이란,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
 - 이란은 2017년 말 반정부 시위 발생, 1월 12일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유예 연장 발표 전까지 연장여부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
 - 베네수엘라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 확대와 석유산업 투자자금 부족 및 인프라 노후화 등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
- 북해/리비아 송유관 가동중단에 따른 단기 생산차질도 발생
 - 북해 Forties 송유관이 원유유출로 인해 3주간 가동이 중단되며 45만 b/d의 원유생산 차질(2017.12.11일)
 - 리비아 무장단체의 Es Sider 항구 인근 송유관 공격에 따른 1주간 가동 중단으로 10만 b/d 상당의 생산 차질 발생(2017.12.26일)

⑤ 투기자금 유입 확대

- 2017년 하반기 이후 원유 선물시장에 투기자금 유입 증가
 -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(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, CFTC)의 주간 발표자료에 의하면 NYMEX WTI 상품 선물에서 비상업용(투기자금) 순매수 포지션이 70.8만 계약으로 지난 7월초 대비 107.6% 증가

< 미국 NYMEX WTI 선물 순매수 포지션 및 선물유가 추이 >



자료: CFTC, Petronet 재인용

□ [향후 전망] 2018년 유가는 견조한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상승하겠으나 非OPEC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급등세 지속은 어려울 전망

- 2018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석유수요가 이어져 유가 상승을 지지할 전망
 - 주요기관들은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*
 - * 2018년 석유수요: EIA 172만 b/d, IEA 129만 b/d 증가 전망
- 하지만 유가상승으로 손익분기유가에 도달한 非OPEC 국가의 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의 급등세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
 - OPEC 감산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非OPEC 원유생산량이 유가상승과 함께 지속 증가하여 공급과잉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
 - EIA는 2018년 1월 보고서에서 2018년 非OPEC 석유공급이 전년대비 203만 b/d 증가*할 것으로 전망
 - * 2018년 OPEC 공급량은 33만 b/d 증가하여 2018년 총 석유 공급량은 237만 b/d 증가

- 배럴당 70달러 이상의 유가가 유지될 경우 OPEC이 조기 감산 종료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
 - 2018년 6월 OPEC 총회에서 감산 출구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, 감산을 종료하기로 결정할 경우 감산기간 만료 시까지 감산의무국들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
 - 러시아 Lukoil의 CEO는 Brent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를 6개월 정도 유지할 경우 점진적 감산 종료를 필요성 주장
- 2018년 평균유가는 전조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상승하겠으나 非OPEC 공급 증가, OPEC 감산종료 등이 상승폭을 제한, 전년대비 배럴당 5~6달러 상승한 60달러 내외 전망
 - 다만, 이란,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확대 시 배럴당 70달러대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
 - 12월 이후 해외기관*들의 2018년 유가전망 평균치(Brent유 기준)는 57.6달러이며, EIA는 올 1월 2018년 평균유가를 배럴당 59.74달러로 상향 조정

* Citigroup, Deutsche Bank, BMI Research 등 8개 기관

< EIA의 2018년 국제유가 전망(Brent유 기준) >

(단위: \$/bbl)

기관 (전망시기)	2017년		2018년				
	4/4	평균	1/4	2/4	3/4	4/4	평균
EIA (18.1월)	61.42	54.15	59.68	58.00	59.97	61.31	59.74

주) EIA : 美 에너지정보청(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